

계간 《간디IN》 2017년 여름 호(통권 42호)



더불어 행복한 사람





이곳은 베트남 바닷가. 마냥 해맑은 모습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는 듯합니다. 살면서 다시 저곳으로 친구들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란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담아 두고자 합니다. 많이 겪어 보려 합니다. 훗날 친구들과 얘기 나눌 때 웃을 수 있는 애깃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결(4학년) 편집장



차례



그림·미스터김

1부 간디학교 소식

2부 일상다반사

3부 In 멋있는 S 사람들 G 간디인

2 여는 글 '습니다' :: 이한결 편집장

6 움직이는 학교 좌충우돌! 무빙 이야기! :: 김서준(1학년) 기자

학교 떠나면 고생길 열린다 :: 김서준(1학년)

박연우, 드디어 뛰다! :: 박연우(2학년)

강정바당 지켜 줍소! :: 박우제(3학년)

필리핀을 정리하며 :: 오승택(4학년)

바라봄에서 3주간 무빙 :: 신비아(5학년)

15 생활관 이야기 배고픈 우리에게 한줄기 빛 같은 :: 이성민(2학년) 기자

20 사설 열차 출발합니다. 다음 역은 (?)입니다 :: 박우제(3학년) 기자

26 우리끼리 덕산의 활력소, 예측불가 매력쟁이들 :: 이한솔(5학년) 기자

간디학교 완소남 이정상 쌤 아들, 이지완(9), 이자웅(6)

독부러지게 말 잘하는 강희석 쌤 아들, 강이겸(6), 강이원(4)

황선호 쌤의 삼 남매 중 막내 공주님, 황세린(6)

순수한 귀요미 박상현 쌤의 아들, 박지환(6), 박지호(5), feat. 놀라운 사촌누나 해림(9)

36 배움 속으로 심블리의 남자 :: 최유경(4학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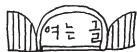
41 반가워요 후원인 내가 바로 채소 왕! :: 이한솔(5학년) 기자

44 화제의 인물 우리가 이 구역의 비글 남매다 :: 권문서(2학년) 기자

52 스케줄러

58 광고 2018학년도 제천간디학교 신입생 모집

60 기자 후기



글 ‘썹니다’

이한결(4학년) 편집장

무더운 여름. 피서는 잘 갔다 오셨나요? 필자는 남들보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필리핀으로 해외이동학을 다녀왔기 때문이지요. 땀은 비 오듯 흐르고 학교 밥이 너무 그리웠지만, 누리고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함께한 가이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던 시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빈곤’할지 모른다는 선생님의 말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겠으나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회, 더 나아가서 살고 있는 학교가 떠오르더군요. 학교는 사회처럼 ‘빈곤’하지 않을까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간디학교가 이 빈곤한 사회와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것은 맞다고 믿습니다. 이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이 노선이 옳고 그른 것인지 따지기도 전에 노선 자체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요즘, 사회의 빈곤함이 학교에도 침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 ‘간디학교’란 공간

의 특수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우린 분명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왜 ‘간디학교’란 곳에서 살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양이 부족한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것, 풍요로워 보이기 위해 하는 것. 바로 ‘소비’입니다.

‘머니 스웨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돈(머니)을 흥청망청 쓰는 게 곧 멋(스웨그)이자 자랑거리로 전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생산보단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지출’하면 원하는 것이 저절로 ‘구입’될 거라 착각을 하고 있고 sns 같은 미디어는 그런 소비에 맞춰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말이지요. 그리하여 학교도, 어떠한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도 소비의 일환으로 보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다면 즉각적인 소비를 떨치지 않는 학교의 활동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만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런 착각 때문인지 모든 활동마다 의미를 부여해야 했던, 의미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했던 예전에 저와 많은 간디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은 긴장 풀고,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찬찬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며 사는 것 같습니다. ‘소비’하는 문화를 이겨내려면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나 봅니다. 다 만들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알 수 없는 것, 절대로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학교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소식지를 만드는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소식지를 만드는 일상다반사는 봄 호가 늦게 나온 탓에 이번 여름 호도 방학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필자는 일찍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고, 남은 기자들은 움직이는 학교¹를 가기 전에 기사를 완성하고 학교를 떠났죠. 다들 열심히 기사를 썼겠지만 이번 여름 호에 가장 열심히 기사를 쓴 기자는 바로 이재형 기자와 박우제 기자일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규칙백지화²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한 걸까요. 기사를 위해 전교생 인터뷰까지 감행하는 등 신입기자의 패기와 배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해 가면서 쓴 만큼 재밌는 내용에 기사가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호엔 기자들의 노련함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에도 신속하게 기사를 써

1. 6월에 진행되는 학습 기간. 학년마다 주제를 가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 배움을 가집니다.

2. 2016년 학생회가 진행한 프로젝트. 새로운 규칙과 자발성을 기대하는 의도로 모든 규칙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넌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들은 자신의 기사에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모두 자신이 써 낸 글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글을 쓴다는 행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밌어 보이는 일이었고 한 문장이 빠짐없이 저보다 훨씬 멋들어지게 쓰는 선배들을 동경했습니다. 쉽고 간편한, 짧고 재밌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에 마음이 넘어가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글을 회피하려는 주변의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sns 같은 미디어 무더기는 속이 텅 빈 것같이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곰씹음'이란 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요. 가끔은, 정말 가끔이라도 곰씹음, 메시지를 탐구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은 페이스북에 비하면 불친절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전하고픈 말이, 스스로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여지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기사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쾌감을 줍니다.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생각에서

나오는 단 하나뿐인 글이 기록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느껴집니다. 소중한 만큼 사람들이 재밌게 읽어 주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를 비롯한 다른 기자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글도 몇 번씩 곱씹으며 읽게 됩니다.

글을 쓰고 읽는 걸 맛에 비유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쓴맛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글을 쓴맛으로 만든 것일지 모르겠지만 '쓴 게 보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지루해 보이고 매끄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꼭꼭 씹고 삼키면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ⁱⁿ를 읽는 여러분들도 기자들의 글 하나하나 꼭 곱씹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솟아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시간 내서 저희가 쓴 '쓴' 글 한 번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손주에게 보약을 먹이는 할머니들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씹쓸하더라도 보약 같은, 소비하지 않고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의 글과, 시절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무더위 속 땀방울을 담아 여름 호, 시작합니다. 🍷



1부

간디학교 소식

움직이는 학교 **좌충우돌! 무빙 이야기!** :: 김서준(1학년) 기자

학교 떠나면 고생길 열린다 :: 김서준(1학년)

박연우, 드디어 뛰다! :: 박연우(2학년)

강정바당 지켜 줍소! :: 박우제(3학년)

필리핀을 정리하며 :: 오승택(4학년)

바라봄에서 3주간 무빙 :: 신비아(5학년)

생활관 이야기 **배고픈 우리에게 한줄기 빛 같은** :: 이성민(2학년) 기자



좌충우돌! 무빙 이야기!

김서준(1학년) 기자

2017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무빙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간디학교의 '무빙'이란 움직이는 학교로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서로 다른 곳에서 한 달 동안 오로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다만, 5학년은 개인 무빙으로 각자 학교를 떠나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친구들끼리의 관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태풍처럼 많은 것들을 몰고 왔다가 많은 것을 헤집어 놓고 금세 사라지는 무빙! 지금부터 각 학년의 무빙을 살펴볼까요?



학교 떠나면 고생길 열린다

김서준(1학년)

6월 8일 늦은 5시 30분,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학교로 집합했다. 그리고 9시, 하루 나누기' 시간에 최종 무빙 여행 발표와 함께 간단한 무빙 규칙 & 일정을 듣고 난 후 드디어 지나긴 양반의 19박 20일의 첫 무빙 첫날밤이 시작되었다.

1학년의 무빙 장소는 '간디에서 등지 틀기'라는 주제에 맞게 학교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풍물을 하는 일주일 빠른 기숙사에서 잤던 날이 3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름 쌤이 여행을 좋아하는 덕분에 일정이 풍물 기간 빼고 온통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총 4번의 여행을 했는데, 그중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여행은 제천 인근지역 탐방이었다. 3박 4일 순서대로 문경, 단양, 정선을 여행했다. 나는 정선 조였는데 여행 계획을 짜면서 정선에서 관광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숙소가 단양과 너무 멀어서 결국 영월에서 놀다가 잠만 정선에서 잤었다. 그래도 정선이 아닌 영월에서 하루 일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 다들 만족했었다. 또 우리가 처음으로 쌤들의 도움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더 의미 있었다. 밥도 우리가 직접 해 먹고 여행 코스도 우리가 직접 짜고 숙소 예약도 우리가 했다. 그렇지만 모든 걸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싸우고 울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다. 스톱(STOP) 회의도 2번 열리고 전체 간담회도하고 쌤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반 전체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무빙을 하면서 우리 반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무빙 시작 전에는 양반 안에서도 남과 여가 따로 놀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 없이 놀게 되었고, 서로 고민 상담도 해 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앉고, 남자 여자 사이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언젠가는 친해지겠지...' 하며 항상 남자 여자 사이의 관계를 미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빙 동안 우리 반 관계에 발전과 변화가 생겨서 무빙 후 느낀 점 중 무빙으로 인해 얻은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자유 시간 후 곧장 풍물 주간이 들이닥쳤다! 5일 동안 아침 먹고 풍물, 점심 먹고 풍물, 저녁 먹고 풍물이라고 일정에 적혀 있어서 '정말로 5일 동안 풍물만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이었다. 풍물 시작 전에는 계속 풍물만 해서 정말 지루할 것 같았는데 막상 풍물을 시작해 보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풍물에만 열중했었다. 5일 중 이틀은 앉은반 남은 3일은 선반을 연습했는데 앉은반은 강당, 선반은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었다. 앉은반을 할 때는 시원해서 좋았지만 선반 연습을 할 때는 운동장 땀별에 나가서 걷고 뛰며 연습하니 정말 더워 죽을 지경이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공연 나누기를 할 때 다 같이 느낀 점을 발표할 때는 선반 할 때는 정말 더웠다고 말을 했었다.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빙 중 제일 추억이 되었던 시간은 풍물 주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각자 다른 악기를 갖고 다른 소리를 내지만 서로서로 맞춰 나가서 나중에는 멋진 음악이 되는 과정이 공연을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고, 우리 반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어서 기억에 남았다.

우리 양반의 첫 무빙은 아주 액티비티(activity)했다.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들을 만들어 내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았다. 아마도 아름 쌤이 여행을 많이 하도록 만드신 건 우리가 많은 걸 함께 보고 느끼면 같이 성장하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다.

박연우, 드디어 뛰다!

박연우(2학년)

2학년 무빙이 끝났다. 확실히 1학년 때보다 다르다. 재미없다. 난 그렇다. 물론 1학년 때 무빙이 얼마나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상 그런 거 같다. 아님 말고. 어쨌든 무빙이 시작됐을 때부터 무빙이 끝난 지금까지도 대체 너와 나의 대한 이해라는 주제와 이 ‘뛰다’에서 하는 연극이 대체 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웬지 자료 집에 적혀 있을 거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패스하고 확실히 2주는 짧은 것 같다. 밥 세 끼 먹고 대충 6시간 ‘뛰다’ 일정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숙소 들어가서 자면 하루가 끝난다. 물론 허언이다. 한 86.2퍼센트가 허언이 아니다. 대체 너와 나의 대한 이해는 언제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요일 빼고 계속 그런 일정이 계속된다. 나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느꼈을까? 느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정말 궁금하다. 나는 그냥 “이거해”라고 해서 해 봤는데 재미있었다. 그거였다.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2주 동안 그걸 한 거였고 언제나 재미있었지만 언제나 피곤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조금 쉬고 바로 잤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나는 2주 동안 무빙을 하면서 느낀 게 없었다. 재밌다. 피곤하다. 부족하다.- 이게 끝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무빙이 재밌진 않았지만 처음에 할 때 재미없었던 것을 잊은 것뿐이지 처음부터 재밌진 않았다. 위에 1학년 때보다 재미없었다고 한 건 1학년 땐 엄청 재밌었고 이번엔 재미있었다 정도?

음... 확실히 작년보다 모두가 가까워진 것 같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진짜 친해진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너무 친해져서 반에서 커플이 나오려고 하는 정도면 말 다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다. 농담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글 쓰고 나서 둘 사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2학년, 어쨌든 이번 무빙은 모두가 즐겁지는 않았다. 겉으로 활발했지만 속으로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물론 나야 모르지만 확실히 모두가 즐겁진 않았다. 이걸 확신한다.

당연히 이 빠센 일정이 안 힘들 수가 없다. 만약 연극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면... 휴... 하지만 그걸 견뎌내고 공 연까지 완벽하게 마친 우리 반 아주 칭찬해 손뼉뽀뽀! 언젠진 모르겠지만 저번 다른 학년은 ‘뛰다’에서 많이 다쳤다 했었는데... 발인가? 왜 다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한 명도 안 다칠 줄 알았다...ㄱ 3명이 손가락을 다쳤다. 1명은 발을 뺀 것 같았고. 그렇다, 우린 많이 다쳤다. 손가락을 다친 3명 중에 나도 있다. 나는 초콜릿을 먹다가 다쳤다. 현호는 문이 닫힐 때 손가락이 꺾다고 했다. 규리도 다쳤었는데 모르겠다. 왜 다쳤는지. 우린 부상자가 많았다.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 여행이 너무 짧았다. 2박 3일(?)이었나? 어쨌든 길어 보이는데 너무 짧았다. 하루만 더 놀았어도 좋았을 텐데... 이번 무빙은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그 아쉬웠던 점들을 덮어 버린 만큼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게 놀았다. 우린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을 2학년 무빙을 후회 없이 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다. 더 열심히 놀 걸... 어쨌든, 나는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을 써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부담이 됐고 왜 나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내가 쓴 거 한 번 읽었는데 난 진짜 글을 못 쓴다. 죄송합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혼또니 고맙네 내년 무빙 기대된다. 엄청나게 기대된다.



강정바당 지켜 줘소!

박우제(3학년)

5일차 오전 강정마을 여행기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강정으로 향했다. 새벽이라 무척 졸리고 피로한 상태였다. 강정으로 같이 간 남자 아이들-마루, 태운, 담은 차 안에서 폭 자는 모습이였다. 물론 나도 폭 잤다... 3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 숙소에서 1시간 채 안 걸려 도착한 강정마을. 5년 전 엄마와 형이랑 같이 왔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모습이였다. (옛날에 본 모습은 펜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해군 기지는 이미 다 지어진 상태였고 옆으로는 군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었다. 해군 기지를 마주보면서 드는 생각은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 기지라니' 하는 것이였다. 아! 물론 강정 해군 기지는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그 큰 해군 기지 문 앞에서 평화의 100

배를 했다. 그때는 고작 외국인 1명과 주민 2명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니 생각보다 많아 보여 좋았다. 절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마다 앞으로 군함이 보였다. 불편했다. 우리는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무사히 평화의 100배를 마쳤다. 함께한 사람들과 잠깐의 인사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돌아갔다.

숙소 아침을 먹은 후 다시 강정으로 향했고 강정에선 평화의 미사를 드렸다. 차가 다니는 길 옆 천막에서 진행했는데 무척 소박했다. 가끔 욕을 하고 가거나 경적을 울리고 가는 놈(?)들이 있어서 좀 거슬렸다. 그다음으로는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라는 곳으로 갔다. 곳곳에 평화, 구럼비, 강정 관련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잉글랜드의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제주의 아픈 마음' 다큐를 시청했다. 제주 해군 기지 문제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문제, 강정마을의 저항 운동을 보여 줬다. 다큐를 보니 강정 해군 기지의 건설을 막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란 걸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평화센터 앞에는 피에타 상 하나가 있었다. 그 피에타 상은 베트남 파병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근데 왜 베트남에 안 가고 강정에 남아 있을까? 그 이유는 베트남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막았다고 한다. 그 이후 해군 기지를 짓지 말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 강정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은 마치 시시콜콜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 같아 보였다. 약자를 위협하고, 억누르고...

이번에는 다시 해군 기지 앞으로 향했다. 우리와 마을 주민 20여 명은 같이 평화 시위(?)를 했고 정말 즐겁게 진행되었다. 거기서 공연도 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서로 서로 뭉쳐서 떠를 잇고 다시 노래 부르고 신나게 진행된 평화 시위(?)라 좋았다. 마지막 일정으로 삼거리² 식당에

서 밥을 먹고 끝이 났다. 짧았지만 많은 기억을 준 강정마을이었다.

강정마을을 비롯해서 세월 호, 4.3 등은 사실 나와는 관련 없는 사건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에 공분해야 할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선을 넓게 보면 답이 나온다. 세상을 넓게 보는 일. 제주도로 떠난 이유도 어찌 보면 그것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 삼양 해변, 함덕 해변, 금릉 해변 등등 많은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마늘 치킨, 보말 칼국수, 돼지 두루치기, 아귀찜, 백반, 몸국³ 등등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밥통을 비워 버리는 등 민폐도 끼쳤다. 사려니숲, 제주도 좋아, 기억공간 Re:born, 돌 문화 공원 등등 의미 있는 장소들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 얻은 것도 많고 느낀 점도 많은 제주도 여행이었다. 얻은 것 중 가장 멋진 것은 '우리가 세상을 조금 이나마 바라보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다.

2. 제주 강정마을에는 늘 밥이 그득한 밥솥이 있다. 누구도 밥 먹는 이를 내쫓지 않고 누구나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너른 식탁이 있다. 365일 매일 밥을 짓는 곳. 365일 누군가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곳. 바로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이다.

3. 몸국은 제주도 토속 음식으로 돼지고기 혹은 돼지사골을 기본으로 한 국물에 해조류의 일종인 몸을 넣고 끓이는 국이다.



필리핀을 정리하며

오승택(4학년)

타국에서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낸 그곳들을 정리하고 되새기는 의미에서 내가 여행에서 느낀 바를 이 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공정여행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공정한 것들이 참 많아요. 본인이 보려고 하지 않으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특히 여행은 그런 불공정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

을 거예요.’

4주 동안 필리핀에서 지내며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신 노진호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 불공정함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 나는 이 도구를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바를 경험했을까요?

필리핀에서 처음 갔던 빈민촌 바세코.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 잠들지 못하고, 빵 하나를 얻어 가기 위해 그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나와 자신의 빵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화재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빈민촌 바공실랑안. 그곳에서 좋은 집의 기준은 지붕에 하자가 없으며 집에 페인트칠이 빠짐없이 되어 있다면 그곳은 최고의 집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빈부격차가 존재하여서 잘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나는 그런 하자는 찾아볼 수도 없으며 심지어 에어컨까지 되는 선배들이 지난 3년간 보지도 못했던 역대급 부르주아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기에, 그들의 일반적인 집이 어떤 곳인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역 우리 또래의 아이들과 6일간의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그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자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는지 보고 듣고 왔습니다

바세코와 바공에서의 경험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파다한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조금 생각이 많아진 탓인지 필리핀뿐

아니라 분명 한국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에서 그런 삶을 사는 곳에 방문하여 또 다른 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와 같이 불공정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야 했고 그 운명 속에 삶을 연명해야 했던 사람들을 나는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든 생각은 '이런 세상을 내가 바꾸어 나가야지' 따위의 생각이 아닌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부류의 인간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그 생각은 저의 미성숙한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여행은 색다른 경험을 통한 또 다른 인간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의 시야가 넓어졌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바라 봅니다.

바라봄에서 3주간 무빙

신비아(5학년)

바라봄 사진관에서 무빙을 한 지 3주가 가까이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커서 첫날 한 시간 동안 길을 헤매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관이 편해지기도 했고 힘든 만큼 재미도 있고 뜻 깊은 활동들에 참여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했던 일은 찍은 사진들을 인쇄하는 작업이었다. 사진관에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떨리는데 실수하면 어

떡하지 하는 마음에 가슴 졸이던 것 같다.

3주가 짧으면서도 길게 느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3주가 금방일 것 같다가 힘든 활동을 하면 길게 느껴지기 일쑤였다. 첫 일주일엔 떨리고 적응이 안 돼서 실수투성이었는데 2주차가 되니 점점 적응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빼고는 사진관에 와 본 기억이 없어서 처음 사진관에 왔을 때 느낌이 새로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해지고 굳어지는데 그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신기했다. 사진 찍은 것들을 시간별로 나열하면 점점 표정이 자연스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는 게 보인다.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우리 반끼리도 사진관에 가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양하고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청각장애인들의 장로 사진을 찍는 것이었는데,

울컥한 적도 많았고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다. 미혼모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잠깐 구경 갔을 때도 새롭고 좋았다.

이번 무빙도 다들 재밌게 다녀온 것 같군요! 무빙에서 재밌게 놀았던 만큼, 남은 2학기도 모두 잘 지내길 바라요:D 🐼

배고픈 우리에게 한줄기 빛 같은

이성민(2학년) 기자

우리는 배고프다, 고로 존재한다. - 배고파르트
배고프냐, 더 배고프냐, 그것이 문제로다. - 헝그릿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기숙사 매점!

학교 옆 매점인 우리상회(이하 매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지금. 하지만 '성장기'라 불리고 있는 우리,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학교에선 매점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 기숙사에선 계속해서 배가 고프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외출 규칙¹을 어기면서까지 늦은 밤에 매점으로 내려간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기숙사 매점'이라는 것이 생겼다.

한 줄기 빛 같은 기숙사 매점, 존재 자체로 고마운 기숙사 매점. 하지만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궁금증을 참

을 수 없던 나는 수소문 끝에 기숙사 매점의 총괄을 맡고 있는 김지민(5학년) 학생을 만나보았다.

Q. 기숙사 매점,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A. 기숙사 매점은 내가 먼저 제안했고, 동석 쌤과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야. 동석 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고, (2016년 겨울) 교사 연수 때 쌤들한테 기숙사 매점의 계획을 설명하는 PPT도 틀었어. 현재 학생들은 기숙사 매점을 운영하는 게 그냥 '재들이 돈 벌려고 하는구나'라고만 알아. 그래서 나중에 전교생 앞에서 PPT를 틀 생각이야. 왜 하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려고.

1. 평일 오후 9시 이후에 기숙사 앞 소나무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규칙.



Q. 운영은 어떻게?

A. 기숙사 매점의 첫 계획은 판매할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 학생들에게 싼값에 판매하는 거였어. 그래서 학기 초에 학생들이 원하는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 대자보도 붙였지. 계획대로 대자보에 써 준 물건들을 팔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시범 기간도 없이 바로 팔아도 될까 싶었어. 자산 관리 같은 것도 아직 미숙하고... 그래서 이번 1학기엔 물건 판매보단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차근차근 운영 경험을 쌓기로 했어. 2학기 때까지 일반식품이 규칙화되어 막히지 않는다면 대자보에 써 준 물건을 팔 예정이야.

과는 음식을 정할 땐 학교에서 나오는 간식이나, 가끔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저번에 작업장에서 빵을 팔았을 때 우리는 초코 우유를 만들어 팔았었어. 배가 고픈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끼니가 될 만한 만두나 주먹밥을 팔았고.

학생들이 비싸게 판다는 느낌을 받고 억울해 할까 봐 재료와 수익금, 그리고 판매한 후 평가까지 적어 놓은 글을 매번 학교 게시판에 붙여 놓고 있어. 학생들이 다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기록하는 중이지. 1학기 땐 판매했던 수만큼 매번 붙여 왔고 2학기 땐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붙일 것 같아.

Q. 그렇다면 수익금은?

A. 수익금은 기숙사 매점에서 개인별로 한 달에 만 원

2. 학교나 기숙사 내에서 도난이 일어났을 때 전교생, 전 교사가 모든 일정을 멈추고 하는 회의.



정도 가질 거야. 개인 수입은 기숙사 매점 같이할 사람을 구할 때 말했던 부분이거든. 사실 4학년 때까지 나 혼자 매점보다 1~200원 정도 싸게 팔 생각이었어. 매점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게 기숙사인데, 나만 하고 그만한다고 생각하면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잖아. 생각해 보니 그게 좋은 것 같지 않았어.

동석 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한 계획은 개인 수입을 뺀 나머지 수익금으로 당구대를 사서 학교에 설치하는 거야.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당구대를 설치하는 게 목표야. 요즘 학생들이 하도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와 떨어져 여가시간을 재밌게 보냈으면 하거든. 수익금으로 사는 게 당구대가 될지,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놀이시설을 살 것 같아. 현재 그런 명분으로 후원받은 것도 있고.

당구대를 설치하고 난 후엔 기숙사 매점의 수익금으

로 학교에서 애매하거나 조금씩 돈이 들어가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농구 골대 그물망을 교체해야 할 때나,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도난 스톱회의²가 열리면 도난된 물건을 기숙사 매점의 수익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거지.

〈배고픈 우리의 반응〉

기숙사 매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기숙사 매점이 한창 떡꼬치를 팔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직접, 취재해 보았다.

A군

배고플 때 적절하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와 주는 것

같아. 근데 라면이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앞으로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

B양

처음 사 봤어. 쓰읍... 메뉴 좋은 것 같아. 쓰읍... 저렴한 가격으로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쓰읍... 근데 매워ㅠㅠ

C양

아직 많이 운영하지 않은 것 같아. 라면 팔았을 때 굉장히 히 폭발적인 인기로 20명씩 줄 서 있던 걸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듯해. 그렇게 맛있지는... 하하 게시판에 붙여놓는 글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 붙여 놓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남자 부원만 있는 걸로 아는데 여자 부원도 있었으면 좋겠어.

E균

이거 익명 맞죠? 익명이죠? 너무 맛있지도 맛있지도 않네.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떡꼬치로는 배가 안 차지만, 심심풀이로 먹을 수 있어. 게시판 글은 왜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익명 맞지? 익명이어야 해... 이유를 모르니까 '왜 종이 낭비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이대로만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어.

F양

생필품도 팔았으면 좋겠어. 맛은 조금 부족하지만 꽤 많이 사 먹는 듯해. 학생들이 많이 먹고 즐겨 먹는 걸 싸게 팔고 있는 것 같아.

G양

그냥 먹을 만해. 맛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배고파서 배를 채운다기보단 군것질을 하는 것 같아.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숙사 매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맛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고, 아직 만들어진 의도나 목표가 잘 전달된 것 같지 않기에 충분한 연구와 홍보가 필요할 듯하다. 학생들이 기숙사 매점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을 잘 반영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기숙사 매점이 번창하여 학교에 당구대를 세우는 그날까지! 아니, 학생들이 배고프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기숙사 매점, 아자아자 파이팅!!! 🍴



2부 일상다반사

사설 열차 출발합니다. 다음 역은 (?)입니다 :: 박우제, 이재형(3학년) 기자

우리끼리 덕산의 활력소, 예측불가 매력쟁이들 :: 이한솔(5학년) 기자

간디학교 완소남 이정상 쌤 아들, 이지완(9), 이지웅(6)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 강희석 쌤 아들, 강이겸(6) / 강이훤(4)

황선호 쌤의 삼 남매 중 막내 공주님, 황세린(6)

순수한 귀요미 박상현 쌤의 아들, 박지환(6), 박지호(5), feat. 놀러온 사촌누나 해림(9)



열차 출발합니다. 다음 역은 (?)입니다

박우제·이재형(3학년) 기자

백지화의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다.

“이번 열차는 백지화, 백지화 열차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의 앞에 백지화라는 열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열차에 탑승하였다. 곧 안내방송이 나왔다.

“열차 출발합니다. 다음에 내리실 역은 (?)입니다.”

“에?!”

우리는 다음 역을 알 수 없는 열차를 타고 새로운 출발
을 했다. 얼마나 가는 걸까?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째, 여전히 열차는 달
리고 있다. 지난 4월 28일 백지화에 대한 평가 간담회가
열렸다. 규칙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이번 학기에는 처음
같이 모여 백지화 생활과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다. 백지화 후 진행된 평가 자리로는 세 번째, 이날은 분
위기가 예전의 평가 자리와는 사뭇 달라 보였고 그전의 평
가 자리에 비해 규칙 또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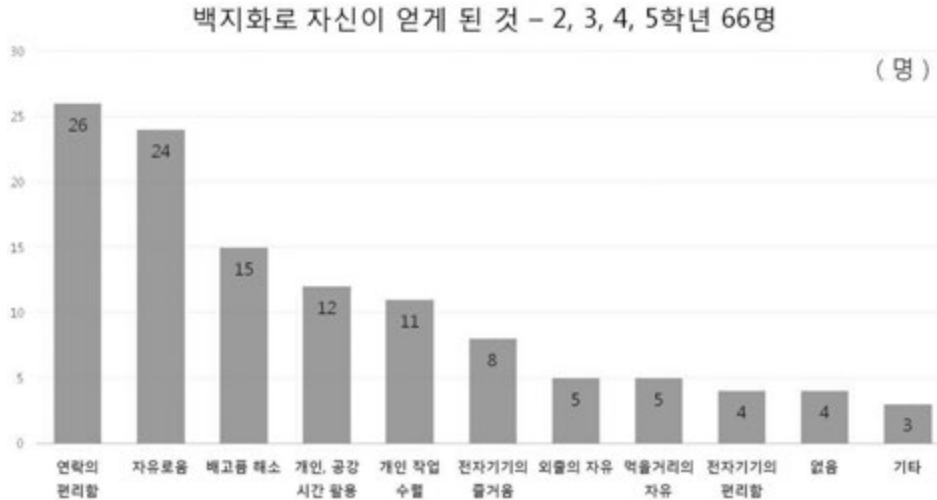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간담회 등의 평가 자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은 백지화를 하면서 구성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교육적인 효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 느꼈는지가 중요
하기 때문이다. 백지화의 시작도 "규칙 없는 생활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이니 말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 보고 싶었다. 평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몇
명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학
생들의 생각을 통해 현재 백지화의 모습을 들여다보려 했
다. 우리는 5월 10일 ~ 5월 20일 사이에 2 ~ 5학년 67명 중
에서 66명의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다.

자 유

백지화 이후 많은 학생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생
활이 찾아왔다. 백지화의 시작을 함께했던 2, 3, 4, 5학년



66명의 학생들에게 “백지화 이후 자신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니 66명의 학생들 중 무려 24명의 학생들이 “자유로움”이라고 답했다. “먹거리의 자유, 외출의 자유”라고 답했던 학생들을 더하면 34명이다. 절반이 넘는다. 4, 5학년들의 대답을 들어 보니까 4, 5학년 고등부 학생들이 그동안의 규칙 속에서 자유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31명 중 23명이 “백지화로 자신이 얻게 된 것”을 “자유”라고 말했다.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4월 28일 백지화 간담회에서 5학년의 한 누나는 과거를 회상하다 이런 말을 했다. 백지화가 되고 두 학기째, 우리의 생활에서 보이는 새로운 모습과 문화는 무엇인 걸까?

전자기기에 미친 우리의 생활에 전자기기가 미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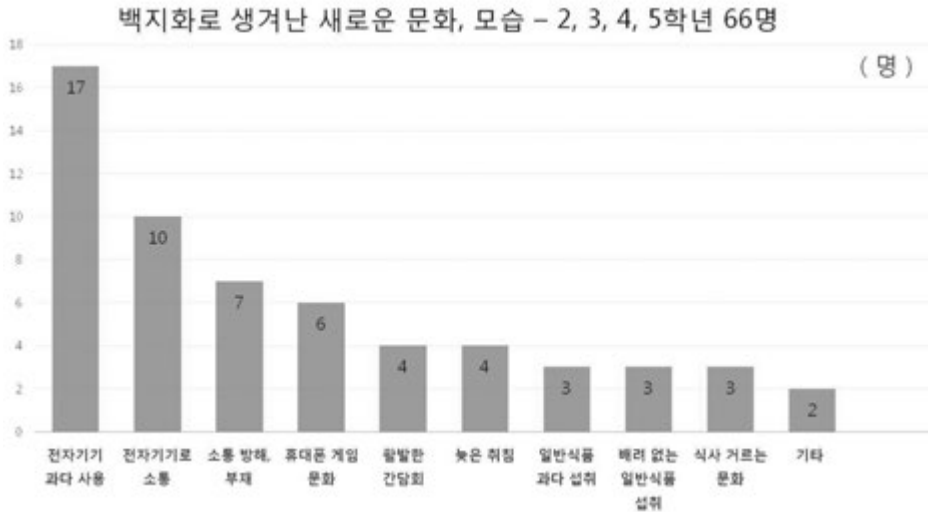
66명의 학생들에게 백지화로 생겨난 모습과 문화를 물어보니까 17명이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다. 또 10명의 학생은 “백지화 후 전자기기로 소통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했는데, 전자기기 규칙이 백지화된 지금 소통의 기구가 대부분 전자기기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회의, 모임 알람을 하는 모습도 예전과 다르다. 이번 학기 4학년은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 이동학습(5/21~6/30)을 다녀왔는데 해외 이동학습 준비부터 낯선 타지에서 지내기까지 회의 등의 모임 공지와 간단한 회의, 일정 나눔과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카카오톡이 사용됐다. 이처럼 이제는 회의 알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닌 모바일 속의 대화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백지화 후 무엇보다도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가 우리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꿔 놓은 전자기기의 사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져온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전자기기로 얻게 된 것

2, 3, 4, 5학년 학생 66명에게 “백지화로 자신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26명의 학생이 “연락이 편리해졌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만끽하고 있는 것도 연락이 편하다는 것이다. “백지화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도 연락의 편리함에 만족하는 학생들



이 66명 중 21명으로 많았다.

연락의 편리함 다음으로 전자기기 사용이 우리에게 준 것은 개인, 공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개인 작업이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핸드폰을 쓸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은 66명 중 12명이다. 발표 준비, 정보 조사, 숙제, 자기계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 66명의 학생들 중 11명은 개인 작업이 백지화 후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특히 노트북은 우리가 지금 기숙사 공부방에서 기사를 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락부터 개인시간과 개인작업, 자기계발과 게임까지 전자기기 사용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었다. 그러나 전자기기 사용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전자기기 과다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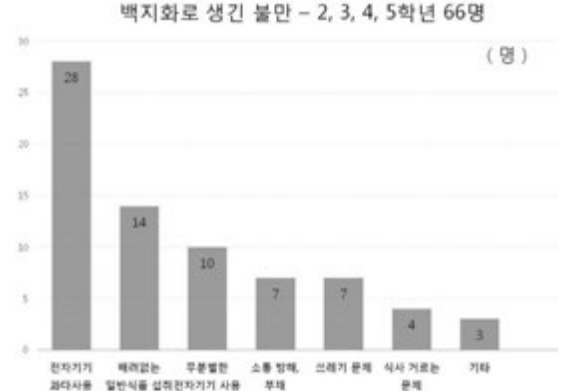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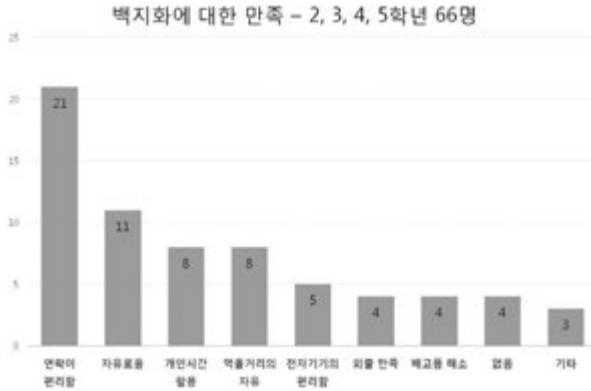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백지화로 생겨난 모습과 문화는 무엇이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66명 중 17명의 학생이 “전자기기

과다 사용”이라고 답하였다. 학교에서도 기숙사에서도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쓰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백지화로 생긴 불만”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66명의 학생 중 무려 28명의 학생이 “전자기기 과다 사용”이라고 답하였다.

전자기기의 과다 사용은 소통의 부재를 불러오기도 한다. 1학기의 어느 날 밤, 남자 기숙사 사감 쌤 방에 1학년 남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말은 “방에 형들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서 놀 사람이 없어요.”였다.

일부 학생들은 백지화 이후 전자기기로 인해 소통이 방해되고 단절됨을 체감하고 있었다. 2, 3, 4, 5학년 66명의 학생들에게 “백지화로 생긴 새로운 문화와 모습”을 물어봤을 때 “소통 부재, 소통 단절”이라고 답한 학생은 7명이었으며 “백지화로 생긴 불만”을 물어봤을 때도 소통 부재와 단절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7명이었다. 그렇게 전자기기의 화면만 쳐다보며 있는 모습이 학교부터 기숙사 안에서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학생들은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1학기 초,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가족회의 시간에 핸드폰의 벨 소리가 울리는 일이 있었다. 중등학생회장



김담은 “가족회의 때 울리는 벨 소리가 회의 분위기를 많이 깬다. 그런 일이 가족회의에 한 번씩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처럼 개인 시간 이외에 수업, 회의 등 공적인 자리에서의 전자기기 사용과 식당, 도서관 등 가려야 할 장소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66명 중 10명이었다.

라면의 존재와 배려의 부재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 일반 식품에 대한 얘기 중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배고픔 해소’와 ‘배려 없는 일반 식품 섭취’였다. 일반 식품의 자유로 우리는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다.

예전에 사감 쌤께 간 걸리려고 조심조심 먹었던 때, 라면 냄새 빠려고 온갖 짓을 다했었다. 라면 냄새는 별로 안났고 쓰레기도 깔끔하게 치웠었는데 지금을 돌아해보니 좀 심각한 것 같다. 이 닭고 세수하는 세면대엔 라면 찌꺼기가 껴 있고 방 안 쓰레기통엔 라면 쓰레기가 늘 있어서 냄새가 난다. 또 누군가가 라면을 먹을 때 풍기는 라면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라면의 자유가 온 이후, 라면을 먹을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라면이 얼

마나 잘 익나”뿐인 걸까? 백지화로 나타난 문제 중 하나였던 “규칙과 함께 깨져 버린 배려와 약속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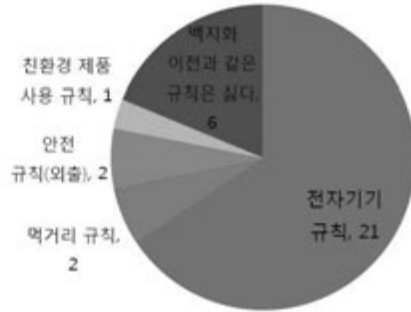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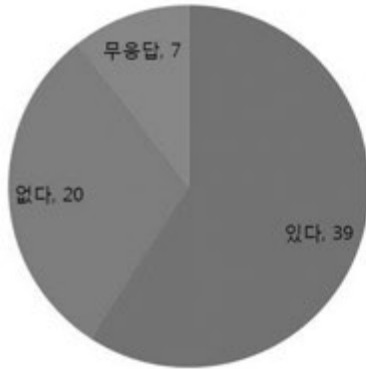
규칙이 필요할까?

4월 28일 간담회를 통해 규칙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음을 본 우리는 규칙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2,3,4,5학년 학생 66명에게 필요성을 느끼는 규칙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66명 중 39명으로 많았다. 그중 전자기기에 대한 규칙 혹은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한 학생은 21명이었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재는 통제가 안 되며 막 나가고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백지화 시작과 함께 정했던 백지화 약속(배려, 예의, 안전 등을 위한)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이 없으면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였다. 많은 학생들이 규칙 없는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규칙의 필요성 - 2, 3, 4, 5학년 66명

(명)



산청간디학교의 규칙 백지화

우리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동시에 우리보다 먼저 백지화를 경험했던 산청간디학교(고등)의 얘기를 들어 보고자 산청간디학교의 학생 두 명을 인터뷰하였다. 2012년 산청간디학교는 당시 자신들이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간디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강한 책임 때문이었고, 자발성으로 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백지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공동체 약속이라는 강한 책임을 가진 수단 없이는 간디학교의 가치와 철학이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한다. 때문에 백지화가 시작되고 1년 후 식구총회에서는 공동체 약속을 만들자는 안건이 통과가 되었고, 현재까지 “휴대폰 실내에서 사용 금지”, “환경 제품 사용 규칙”, “잔반 남기지 않기”, “식사당번 규칙” 등 7개의 공동체 약속이 만들어졌으며, 전의 공동체 약속에 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없고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물론 현재도 공동체 약속이 학교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식사당번, 식구

총회 참석 등 작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백지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느꼈던 것에 있었다. 백지화는 일상 속의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공동체 약속은 학생을 구속하는 철장이지만 동시에 지켜 주는 방패의 역할을 한 닭장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산청간디학교 학생들에게 백지화의 과정은 규율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긍정적인 불만?

우리는 백지화가 시작되고 두 학기째,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백지화의 모습에 대해 들어 보았다. 학생들은 자유를 얻었고, 전자기기의 편리함은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며, 일반 식품의 자유로 학생들은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백지화 이후 규칙과 함께 서로의 배려와 약속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지나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다. 전자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

며 중독에 빠지는 모습,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학생들이 불만과 아쉬움을 느꼈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인터뷰의 결과였는데, 웬지 모르게 마음에 들더라. 어찌 보면 이 인터뷰를 통해 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는 꽤나 긍정적이다.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이러한 불만들이 학생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었으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음을 말해 줬다. 또 전자기기 밖에서 이뤄지는 서로의 관계와 서로간의 소통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산청간디학교의 사례와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백지화의 과정이 규칙의 의미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에 대해 서로가 고민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규칙의 유무보다도 백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완전함은 있을 수 없다. 완전한 규칙도 있을 수 없기에 현재 규칙의 필요를 느끼는 학생들이 앞에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규칙은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때가 지나면 그리고 상황이 바뀌거나 구성원들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처음 규칙이 생겨나고 10년이 지나 기존 규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규칙 백지화를 했던 것처럼 말이다. 산청간디학교 학생은 인터뷰에서 “백지화 이후 학교에는 존재하는 공동체 약속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생겨났다”고 했

다. 처음부터 더 완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하나씩 새롭게 시도해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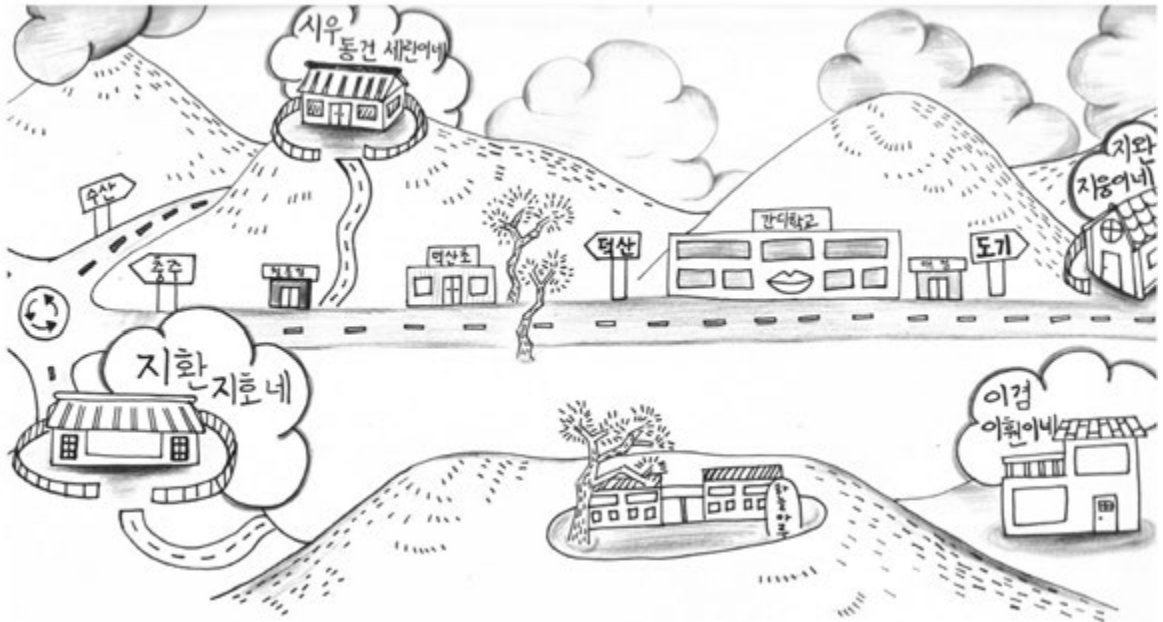
물론 처음부터 모두가 그런 변화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전자기기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느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약속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장소,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약속을 정하고 실제로 해 보면서 경험과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번엔 이거 안 써 보고 이거 안 해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듣기 지긋지긋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사랑과 자발성”이지만, 지금은 이런 자발성이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조건 전체가 같이 결정해서 해야 하고 소수는 잘 안 될 거라는 부담은 조금 덜치고 용기 있는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 백지화를 시작했던 때처럼 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일 것이다.

우리의 다음 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 보니 다음 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다음 역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덕산의 활력소, 예측불가 매력쟁이들

이한솔(5학년) 기자

조용할 것만 같은 시골동네 덕산에 시골벽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올 때마다 모든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온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여운 친구들인데요, 학교 샘들의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노느라 정신 없어 대충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귀여운 7명 아이들의 인터뷰! 한 번 만나 보시죠.



지도 그린이: 5학년 위하늘

간디학교 완소남 이정상 샘 아들, 이지완(9), 이지웅(6)

Q. 지웅이랑 지완이 자기소개 해 줘!

A. 지완: 이름은 이지완이고, 나이는 9살이고, 덕산초등학교에 다니고, 반에서 글씨쓰기 대회 1등 했어.

지웅: 신땅에 어린이집 6살인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이지웅, 이지웅.

지완: 이지웅 없잖아!

Q.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A. 지웅: 게임하고 싶어요.

지완: 비석치기!

지웅: 난 게임이랑 주고받고!

지완: 뭘 주고받아?

지웅: 공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난 핸드폰 게임이 좋아.



왼쪽부터 이지완(9) 이지웅(6)

지완: 너 핸드폰 게임 못하잖아.

지웅: 누나, 나 게임 시켜 줘.

기자: 인터뷰 끝나고 시켜 줄게.

지웅: 알았어.

Q. 간디학교에서 누가 제일 좋아?

A. 지완: 이름 모르는데. 엄청 키 크고.

지웅: 누나 이름 뭐지?

지완: 어떤 형 있었는데. 농구하는 형. 늘찬이 형. 잘해 줘.

지웅: 게임해 줘.

기자: 지웅이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좋아?

지웅: 누나.

Q. 지완이랑 지웅이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A. 지완: 그냥 살 거야. 숨쉬고.

지웅: 와인 무한 번 먹을 거예요. 와인 무한 개 먹을 거예요.

기자: 지웅이 와인도 알아?

지웅: 알아요. 엄마가 자꾸 와인을 먹어요!

Q. 나중에 커서 중학생 되면 간디학교 오고 싶어?

A. 지완: 응. 올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지웅: 누나랑 복싱할 거야.

지완: 니가 여기 다니면 있잖아, 이 누나는 여기를 졸업하고 없어.

Q. 좋아하는 친구 있어?

A. 지완: 안○○. 서○○.

기자: 여자친구 없어?

지완: (단호하게) 없어.

지웅: 있잖아, 강○○.

지완: 난 걔 안 좋아해. 니가 좋아하겠지.

기자: 지웅이는?

지웅: 내가 제일 좋아요.

기자: 여자친구 없어요?

지웅: 네, 없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이○○ 누나.

Q. 엄마 아빠가 좋을 때랑 싫을 때는 언제야?

A. 지완: 게임 시켜 줄 때.

지웅: 나도.

지완: 싫을 때는 화낼 때.

지웅: 나도 화낼 때가 제일 무서워.

지완: 니가 너무 방을 어질러 놓고 엄마 말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뭐 어찌고저찌고 내가 이불을 선택했는데 니가 바꾸자고 새로운 걸 또 바꾸자고 해서 엄마가 화났고, 아침에 내가 스케치북 이지웅이 또 뺏어 가지고 엄마가 화나 가지고 이지웅을 혼냈어.

지웅: 형아 자꾸 나한테 화내니까 치킨 먹을 때 형아가 먹지 말라고 하고, 형아가 치킨 안 먹을 때 먹으라고 하고! 형아 찿 사람이야!(!?)

지완: 이지웅 거짓말하고 있어.

Q.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A. 지웅: 엄마.

지완: 어떨 땐 엄마, 어떨 땐 아빠.

지웅: 난 엄마! 아빠 자꾸 '으아아아!' 이러면서 화내요. 도깨비처럼. 엄마도 싫을 때도 있어요.



왼쪽부터 강이겸(6), 강이훤(4)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 강희석 샘 아들, 강이겸(6), 강이훤(4)

Q. 훤이랑 겸이 자기소개해 줘!

A. 이겸: 여섯 살.

이훤: …….

희석: 에~ 훤이 나이도 모르나?

이겸: 훤이는 네 살이니까 네 살 애들 반. 나는 여섯 살이니까 여섯 살 반.

Q. 간디학교 형 누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A. 이겸: 당연히 성현이 누나, 성민이 누나지. 잘 놀아@#%&\$%&

Q. 간디학교에 오고 싶어?

A. 이겸: 아니. 겸이는 낚시가 좋은데. 낚시하면 물고기를

볼 수 있잖아. 낚시해서 상어 잡으면 어떡하지?

Q. 이겸이 낚시 좋아해?

A. 희석: 겸이 낚시 한 번도 안 해 봤어.

Q. 낚시 말고 또 뭐가 좋아?

A. 이겸: 노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겸이 집에 팽이 있는데, 그거 돌리는 것도 좋고. 베이블레이드¹ 막대기 세게 뽑아서 판에서 노는 거 말이야. 누나는 팽이 몇 개 있었는데?

기자: 나는 두 개밖에 없었어. 나는 딱지치기했어. 딱지치기해?

이겸: 안 해. 겸이 너무 어려워.

Q. 겸이는 간디학교 오고 싶어?

A. 이겸: 그래도 7살 되려면 엄청 멀었잖아.

희석: 겸이 너 나중에 간디학교 올 거야?

이겸: 비밀. 띠리리 이야이@#!\$&*

Q. 엄마 아빠가 언제 제일 좋아?

A. 이겸: 만날. 싫을 때는 당연히 화낼 때. 흰이가 자꾸 ‘야, 내 거야!’ 그리고 흰이 있잖아, 만날 자기가 한 거 형한테 했다고 거짓말 친다. 그래서 내가 만날 이 거짓말쟁이야! 이른다.

Q.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A. 이겸: 엄마. 아빠. 다 좋은데. 흰이도 좋고.

Q. 겸이 나중에 어른되면 뭐하고 싶어?

A. 이겸: 친구들이랑 놀 거야. 만날. 죽을 때까지. 지환이랑 지웅이랑.

황선호 샘의 삼 남매 중 막내 공주님, 황세린(6)

Q. 세린이 자기소개해 줄 수 있어?

A. 세린: 아니 못 해.

기자: 얘기 안 해주면 언니 초콜릿 안 준다~

세린: 마음대로 해라~(소파에서 뛰어내리느라 정신없다)

기자: 이름이 뭐라고?

세린: 황! 세! 린!

기자: 세린이 몇 살이야?

세린: 여섯 살.

Q. 세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A. 세린: 게임! 여우야 여우야. 아니! 우리 집에 왜 왔니.

기자: 친구랑 하는 거야?

세린: 나 친구가 덕산에 한 명도 없어.

기자: 그럼, 어딴어?

세린: 난 친구가 아니야.

기자: 그럼, 뭐야?

세린: 아무것도 아니야.

1.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왼쪽부터 황세린(6), 황동건(9), 황시우(11)

Q. 세린이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A. 세린: 엄마 되고 싶어.

기자: 세린이 딸 낳고 싶어 아들 낳고 싶어?

세린: 딸. 딸이 좋아. 아들은 너무 말썽을 잘 피워.

Q. 세린이 시골에서 사는 거 재밌어?

A. 세린: 응. 마트도 많아서!

Q. 세린이 엄마 아빠가 좋을 때랑 싫을 때가 언제야?

A. 세린: 엄마가 만날 좋을 땐 5월이고, 아빠가 만날 좋을 땐 6월, 엄마가 만날 싫을 땐 8월, 아빠가 만날 싫을 땐 1월.

Q.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A. 세린: 아이스크림!

Q. 싫어하는 음식은 뭐야?

A. 세린: 똥.

Q. 세린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A. 세린: 엄마. 엄마가 날 잘 돌봐 줘. 아빠는 너무 입냄새가 꾸리꾸리해.

순수한 귀요미 박상현 샘의 아들, 박지환(6), 박지호(5) feat. 놀러온 사촌누나 해림(9)

Q. 애들아, 자기소개해 줘!

A. 지환: 신망애 어린이집 다녀요. 그리고 어린이집 안 가면 산책 갈 때도 있어요. 소풍 갈 때도 있고요. 여섯 살이에요.

지호: 다섯 살.

지환: 지호는 신망애 어린이집 다녀요. 저는 지혜반이에요.

지호: 기쁨 있는 반. 기쁨반.

해림: 저는 행현초등학교 다니고, 서울에 살고, 아홉 살이고, 2학년이고, 2학년 6반이에요. 4층에 있는.

Q. 좋아하는 게 뭐예요?

A. 지환: 달리기 좋아해요.

지호: 게임.

지환: 포켓몬.

해림: 저도 게임 좋아해요. 보드 게임 좋아하고, 핸드폰 게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호: 아빠 수영장 언제가?

해림: 이거 인터뷰 끝나고 갈 거야. 수영장은 아니고 그냥 물놀이.

지호: 물놀이 수영장!@%\$^\$

Q. 간디학교에 아는 언니 오빠들 많아? 누가 제일 좋아?

A. 지환: 그냥 다.

지호: !\$^@!%~

지환: 아무도 안 좋대.

Q.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A. 해림: 제 꿈은 네일 디자이너.

지환: 달리기 선수. 아! 축구 선수. 아! 야구! 야구! 야구!



왼쪽부터 해림(9) 박지호(5) 박지환(6)

해림: 그리고 지금 제일 잘하는 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선 갔다가 본선 갔고 본선에서 상 타 왔거든요.

지호: 아무것도 안 할래!

Q. 시골에서 사는 거 어때?

A. 지환: 좋아. 벌레가 좋아.

해림: 나는 벌레 싫은데. 모기도 싫고.

지환: 나 모기 진짜 싫어해.

해림: 꿀벌도 싫고.

지환: 나 꿀벌 좋은데.

지호: 나 모기 잡을 수 있는데.

해림: 콩벌레도 싫고.

지호: 콩벌레?

Q. 나중에 간디학교 올 거야?

A. 지호: 아니.

지환: 절대로 안 갈 거야.

기자: 왜?

지환: 어려울 것 같아.

지호: @#%/#&%&%&

해림: 아예 학교 안 갈 거래.

Q. 학교 밥 먹어 봤어?

A. 지환: 네! '아이와 놀자'도 재밌고, 거기서 피자도 먹을 수 있구. 떡볶이!

해림: 떡볶이 먹고 싶어.

지환: 그럼 그때 올 걸 그랬지.

기자: 지호는 어때?

지호: 맛없어.

지환: 난 맛있는데.

Q. 엄마 아빠가 좋을 때랑 싫을 때는 언제야?

A. 지환: 없어요. 그냥. 잔소리 별로 안 해요.

해림: 화랑 잔소리 낼 때 화나고 슬프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 주고 어디 놀러 갈 때는 좋아요.

지환: 아쿠아플라넷.

해림: 그게 뭐야?

지환: 몰라? 동물들 많은데, 물고기 많은데, 장난감 많은데! 거기가 좋으니까.

해림: 거기가 엄마니?

지호: 다 싫어!

Q.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A. 해림: 엄마!

지환: 난 둘 다!

지호: 난 아빠!

지환: 한 명만 고르면 난 해림이 누나. 아니 한 명만 고르자면 아빠예요.

생각나는 건 아무거나 뵈고 보는,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과 귀여움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에 불쑥 불쑥 찾아올 때마다 형 누나들과 실컷 노느라 바쁜 친구들, 인터뷰 즐겁게 해 줘서 고맙고, 나중에 꼭 간디학교에 입학하렴~👉



3부 *m*멋있는 *S*사람들 *G*간디인

배움 속으로 심블리의 남자 :: 최유경(4학년) 기자

반가워요 후원인 내가 바로 채소 왕! :: 이한슬(5학년) 기자

화제의 인물 우리가 이 구역의 비글 남매다 :: 권윤서(2학년) 기자

스케줄러

기자 후기

심블리의 남자

최유경(4학년) 기자

타로 소모임의 대장,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갯정택으로 간디in을 다녀갔던 오정택 군(6학년)이 벌써 졸업반이 되어 다시 한 번 일상다반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상다반사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간디인에 가장 이름을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교의 6학년이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미리 경험하는 사회생활 인턴십¹을 오정택 군은 시기상 조금 특별한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학기 간 오정택 군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Q.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심상정 의원실에서 인턴십을 하다가 당분간은 백수가 된, 이후에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제천간디학교 졸업반 오정택입니다.

Q. 특별히 1학기는 사회에 나가 인턴십 과정을 밟으며 생활하는 6학년인데, 요즘 근황은 어떤지?

실제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일정이기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2주 정도 이어왔어요. 당분간은 청주 집으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인턴 하는 동안 서울 생활을 했는데, 늘 작은 도시 아니면 산골짜기에서 살아서 그런지 서울 생활도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Q. 2017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의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게 되어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선택한 의도와 계기는?

인턴십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얻은 제 경험을 토대로 제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당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사회를 미리 경험해 보는 인턴십 단체가 실제로 세상이 바꾸는 곳이었던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세상을 바꾸는 많은 곳 중 국회의원 실을 선택했던 이유는 세상이 두 축을 중심으로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 쪽에서는 현장 운동가들이 캠페인이나 연구, 활

1. 본교 6학년의 교육과정. 사회에 나가기 전 본인과 학교의 철학에 맞는 단체나 기업으로 인턴을 나가 배우는 활동이며 약 3-4개월간 진행 된다.

토

神

토

王



Jtbc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4월 25일 (화) 오후 8시 40분

만든이: 오정택

동들로 여론을 만들고 이를 국가에서 넘겨받아 행정적·제도적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보통의 친구들은 인턴십으로 현장 운동가들의 노력을 볼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는데, 저는 특이하게 국가의 제도적 노력을 볼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한 거죠.

Q. 인턴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지?

처음 겪게 된 한계가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이었어요. 국회의라는 곳 자체가 대안학교나 고등학교 인턴십은 흔한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어도 대학생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자치활동, 프로젝트들과 제작한 홍보물들을 모아 많은 분량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심상정 의원실 구성원 분들 중 대안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서 가산점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심상정 의원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 직책은 '홍보특보'였어요. 이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 SNS 본부에 소속되어 활동했는데, 이 부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서였습니다. 올라갈 게시물들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업로드,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이외에도 일정 알람이나 언론 모니터링, 여러 사무 보조들을 담당했어요. 정치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홍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Q. 인턴 시작 전 했던 상상과 가장 달랐던 점은?

우선 홍보특보라는 직책 자체가 선거를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보다는 선거홍보 팀의 성격이 강했던 점이 상상과는 많이 다른 첫 번째 지점이었어요. 또 다른 건 생각보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홍보에 젊은 감각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상상하는 국회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일하는 건 정말 좋았어요.

Q. 인턴을 하며 가장 크게 배우고 느꼈던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한 번 실수를 해서 팀장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일을 맡겨 주시는 만큼 실어 주시는 기대와 책임감도 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정치 구조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었어요. 학

교에서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는 정의당은 정의롭고 멋있고 힘도 세 보였는데, 실제로는 큰 당들에 힘 겨루기 때문에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많이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주의나 군소정당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Q. 반대로 가장 후회하고 힘들었던 때는?

인턴을 시작하고 나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퇴근했다가도 집에서 일하는, 이런 시간이 많았어요. 점점 집, 회사, 집, 회사 패턴으로 삶을 살다 보니 힘들어지더라고요. 노동시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제 개인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또 아쉬웠던 건 사실 고등학생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공백도 많았고, 실제 맡게 되는 일도 보조적인 업무나 자잘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더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고정적인 일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Q. 인턴 중 인상적인 경험이라면?

의원님께서 해단식 날에 우시더라고요. 해단식 때 심상정 의원님 소감을 듣는 순서가 있었는데, 담담하고 자신감 넘치게 시작했던 처음과 달리 마지막에 우시는 장면을 보고 모든 관계자가 다 울었습니다ㅠㅠ 그뻐 저도 많이 슬펐어요.

또 후보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동안 선거를 지켜보던 사람이었을 때는 '누군가가 만들겠지'라고 생각하던 일들이었는데, 그 누군가가 되어서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 신기하더라고요.

Q. 심상정 의원은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봤다면 감상은?

제가 인턴을 시작하고서 두 달 동안은 심상정 의원님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 심상정 의원님과 같은 차(!)의 옆 자리(!!!)에 탈 수 있었어요. 이동 시간이 유일한 의원님의 쉬는 시간이라 대화를 많이 해 보지는 못했지만 심상정 의원님의 자료 읽으시는 모습, 전화 통화하시는 모습,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Q. 일반 사람들보다 다소 근접하게 대선을 접했을 듯합니다.

드문 경험인데 감상은?

확실히 대선 한가운데 있다 보니 접하는 정보의 양이 다르더군요. 아마 제가 대선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으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유력 후보인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심상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없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좋은 뜻과 비전을 가진 군소정당의 후보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해 왔는지,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해 온 현재의 거대 정당들의 공약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Q.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심상정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11.4%까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정권교체에 부담이 될까봐, 사표가 될까봐 등

의 우려를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의당은 얻은 게 많아요. 매번 대선 후보 등록도 못하고 단일화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군소정당도 완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보여 줄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정의당을 많이 알린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정의당 내에서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힘 있는 야당이 될 수 있는 노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인턴 기간 동안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심상정 의원님께서 제가 어디에 사는지를 여쭙 보셔서 청주라고 대답했더니 보은과 가깝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신이 보은 속리산에 있는 작은 절에서 수배생활을 보냈다고 하셔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실제로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무려 9년 동안이나 수배되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는 최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팀이 '프로도망러'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죠.

Q. 아무래도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며 학교로 돌아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천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힘 덕분에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도 파면을 선고할 수 있었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멀어지고 분리되어 있던 정치권과 시민들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도 정치권과 일반학생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집배부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이를 설득하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자치활동 구조를 학생들의 의

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모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인턴이 끝난 뒤 후회 등은 없는지.

우선 제가 '출근해도 좋다'라는 전화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것은 사실이에요. 겨울방학을 보내고 인턴을 시작했으면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많았고, 그곳에 계신 분들과 많이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많이 남는 인턴이었어요.

Q. 앞으로 인턴을 나가야 하는 5학년 후배들, 그 아래 후배들에게 한 마디.

저도 인턴을 한 번밖에 가지 않아서 인턴십의 팁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그곳에서 실제로 내가 하게 될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단체 분위기가 우리학교 인턴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가는 게 좋아요. 또 인턴 단체에서 젊은 분들이 많은지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또 준비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인턴십 다녀오세요~

오정택 군의 다사다난했던 3개월간의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화려한 입담으로 인터뷰를 콕콕 채워준 정택 군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일찍이 좋은 경험을 한 만큼 사회에 나가서도 잘해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6학년 모두모두 미리 졸업을 축하합니다. 🐼



내가 바로 채소 왕!

이한슬(5학년) 기자

2002년 개교한 후 2017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학교에 채소를 납품해 주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원까지 해 주신다구요?! 30년 가까이 채소장사를 하고 계신 유원유통 사장님, 유명목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유명목이고, 농산물 장사를 하고 있어. 올해 10월 29일에 장사 시작한 지 만 30년이 돼.

Q. 유원유통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여기는 농산물 시장이고, 우리는 중매인이라고 하지. 경매를 보고, 채소를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거야.

Q. 어떻게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전에는 내가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 농사를 했으니까 유통과정이나 농산물 품질은 확실히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일은 좀 수월하게 시작하

게 됐지. 근데 요즘 장마철이어서 애호박이 아주 민감해. 잘못되면 많이 빗져야 되고. 채소장사가 진짜 힘들어.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채소장사야.

Q. 이름이 유원인 이유가 있나요?

A. 내가 유원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유원채소'로 시작했다가 시장으로 옮겨면서 유원유통으로 이름을 바꿔서 유통사업을 시작했지.

Q. 유원유통에서 베스트셀러 농산물은 무엇인가요?

A. 내가 주로 많이 취급하는 건 무, 배추.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본이잖아. 철마다 다르긴 하지만 양배추, 무, 배추,



파가 많이 나가. 그런 건 1년 동안 변함없이 나가는 품목이지. 근데 이제는 옥수수가 철이라 옥수수를 좀 많이 팔아야 하고, 또 김장철일 때는 쪽파. 계절마다 다르지.

**Q. 요즘 들어 언론에서 GMO 농산물이나 원산지 허위표기 매
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A.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수입김치를 국산 김치로 팔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있는 대로 팔면 되니까 원산지 허위표기할 필요도 없어.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면 국산 그렇게 팔면 되지. 여기는 원래 일주일에 두세 번 검사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 사업장에는 별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확실해서 잘 안 간

다고 그러더라고. 내 스스로도 원산지 위반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원산지 위반해서 몇 푼 벌겠다고. 우리가 원산지 조작해서 벌금 물면 내 재산 다 팔아도 못 물어. 원산지 위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Q. 간디학교 말고 납품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A. 나도 나이도 있고, 입찰 보낼 곳은 보러 다니지는 못해.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는 곳만 거래하고 있지.

Q. 간디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A. 내가 그쪽에는 물건을 사러 다닌 지 참 오래됐지. 덕산,

수산 쪽으로 물건을 많이 사러 다녔어. 그러다 어느 날 간디학교라고 생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간디학교랑 잘 알게 됐어. 거기 사람들에게 유원유통이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은 고온화되다 보니 그쪽 물건 품질이 자꾸 안 좋아져서 이제는 강원도 쪽으로 가. 그래서 요새는 그쪽은 잘 안 가는 편이고, 그래도 덕산부터 선림, 도기 어느 구석에 누구네 집이 있는지 다 알았지.

Q. 그럼 어떻게 간디학교 후원까지 하게 되셨나요?

A.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 한 달에 많은 돈도 아니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 조금씩 도움 주면 학교 운영에도 낫지 않겠어? 도심도 좋지 만 이런 대안학교들이 시골에 있는 게 참 좋잖아. 이런 게 진짜 학습이지 않나, 싶어. 앞으로 이런 학교가 운영되면 좋겠어.

Q. 학교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A.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 지나다니면서, 행사 있을 때 한 번 가 볼까? 행사할 때 전화 한 번 주면 꼭 가 보지. 동네 분들 오시면 다 아니까. 가면 소주 한 잔씩 주고 그러나? 그러면 행사할 때 꼭 한 번 전화 줘.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정신이 맑은, 우리 농촌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내 생각은 그래. 열심히 배우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

오랜 시간 신선하고 건강한 채소 납품도 해 주시고, 학교 후원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서 인터뷰해주신 사장님, 나중에 꼭 학교 축제 놀러 오세요:) 🍷



우리가 이 구역의 비글 남매다

권윤서(2학년) 기자



조각 같은 외모에 커다란 키를 가진 우월한 유전자, 만났다 하면 동네방네 시끄러워지는 투닥투닥 남매 이창하(2학년) / 이창범(4학년) 남매를 제치고 이번 화제의 인물로 선정된 남매는 학교에서 사이 좋기로 유명한, 눈, 코, 입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모아 놓고 보면 묘하게 닮은, 어디 가나 잘 노는 비글 남매 전하진(4학년) / 전하성(5학년) 남매가 선정되었습니다. 비글 남매의 매력이 잘 드러난 화보와 함께 시끄러운 인터뷰 보러 가시죠!

Q. 먼저 자기소개 부탁해.

A. 하성: 난 5학년 전하성이야.

하진: 난 4학년 전하진이야.

Q.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어?

A. 하진: 없어!!

하성: 난 시스터라고 불러. 그렇지 시스터?

하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가나한테 제이라고도 불러!

하성: 전하진 전화번호가 2개여서 구분하려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제이라고 저장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이라고 부르게 됐어.

Q. 화제의 인물에 선정된 기분이 어때?

A. 하성: 딱히... 그냥 그래.

하진: 아니야, 이 오빠 화보 찍고 싶어 했어. 싫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했을걸.

하성: 그게 아니라, 그냥 이왕 할 거면 그 기분을 느껴 봐야지.

Q. 하성 하진 남매만의 자랑거리가 있어?

A. 하진: 우리는 서로 잘 맞아. 근데 신기하게 집에 가면 진짜 안 맞아. 진짜 많이 싸워.

하성: 맞아. 애가 너무 나한테 까불어.

하진: 아니야!! 내가 언제 오빠한테 까불어.

Q. 학교에서는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데 사이가 좋은 비결이 있어?

A. 하성: 학교에 있어서 그래.

하진: 맞아. 집 밖으로 나오니깐 뭔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

Q. 서로가 잘 맞아?

A. 하진: 잘 맞아.

하성: 하진이한테 맞춰 주느라 내가 힘들어.

하진: 아니야. 내가 오히려 힘들지.

하성: 하진아, 아니야.

Q. 서로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

A. 하진: 눈이 아닐까? 둘 다 아빠 눈 닮았거든. 근데 우리는 눈, 코, 입 다 떼고 보면 안 닮았어. 오빠는 아빠 코 닮았고 난 엄마 코 닮았어.

Q. 학교에서 남매가 있어 좋은 점이 있어?

A. 하성: 시스터, 어떻게 생각해?

하진: 음.....

하성: 둘이 있으니깐 서로 못 챙긴 물건도 챙겨 주고 좋지.

하진: 하나보단 둘이 낫지. 학교에서 편한 사람이 있으니깐 좋아.





Q. 남매가 있어서 안 좋은 점이 있어?

A. 하진: 자꾸 오빠가 돈을 빌려.

하성: 딱히 안 좋은 점이 없어.

하진: 오빠는 내 돈 쓰니까 안 좋은 점이 없겠지.

하성: 그렇지.

Q. 둘이서 있을 때는 뭐 하고 놀아?

A. 하진: 요즘은 많이 안 노는데, 예전에는 내가 춤추면 오빠가 음악방송 VJ처럼 찍으면서 놀았어.

하성: 나 그거 영상 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릴까?

하진: 진짜 안 돼. 하지마.

Q. 싸울 때 주로 무슨 일로 싸워?

A. 하진: 주로 설거지 때문에 싸워. 만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설거지 누가 할지 때문에 꼭 싸우는 것 같아.

하성: 내가 설거지 더 많이 해.

Q. 싸우고 난 뒤에 어떻게 풀어?

A. 하진: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

하성: 그래서 만날 싸워.

Q. 서로 봤을 때 학교에서와 집에서의 가장 다른 점이 있어?

A. 하성: 하진이는 집이랑 학교랑 얼굴이 두 개야. 집에 있으면 하진이가 얼굴이 진짜 많이 부어.



하진: 뭐래. 무슨 얼굴이 두 개야. 솔직히 오빠도 얼굴 많
이 붓잖아.

하성: 아니야. 난 한결같이 잘생겼어.

하진: 와...진짜 거짓말하지 마. 집에서는 오빠가 진짜 얼
굴이 많이 부어.

하성: 사실 맞아. 나 얼굴 많이 부어.

Q. 요즘 학교에서 재밌게 하는 일이 있어?

A. 하진: 없어. 그냥 필리핀 준비가 힘들어.

하성: 나도 없어. 학교가 힘들어.

Q. 하성 오빠는 하진 언니가 필리핀 가는데 기분이 어때?

A. 하성: 너무 좋아.

하진: 나도 좋아. 해방이야.

Q.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

A. 하진: 난 계획이 없어. 너무 막 사는 거 같아.

하성: 나도 계획 없어.

Q. 하성 오빠는 연애 계획 있어?

A. 하성: 아...연애.

하진: 오빠네 학년에서 오빠 포함해서 2명 빼고 다 연애
해. 오빠도 연애 좀 해.

하성: 나도 연애해야겠는데...



Q. 서로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

A. 하성: 잘살자.

하진: 그래, 잘살자.

끈끈한 남매애(?)를 보여 준 하진, 하성 남매! 정말 시끄럽지만 사랑스러운 남매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변하질 않길 바랍니다. 간디학교의 모든 남매, 자매, 형제들 앞으로도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세요! 남매, 자매, 형제들 모두 파이팅!

[번외] 플레이 리스트 ♪

둘이 같이 있을 때 즐겨 듣는 노래

김동률 노래

옛날 노래 많이 듣는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이유

좋아하는 장르

발라드













7월

	W	T	F	S	I
4	5	6	7	8	
집중식 주간					30
11	12	13	14	15	
기말 주간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우와아아아!!! GSW 커리내야!!					





2018학년도 제천간디학교 신입생 모집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제천간디학교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 통합 6년제 과정입니다.

1. 모집 대상: 중학교 1학년 입학 예정자(남녀 공학)

2. 모집 지역: 전국

3. 지원 자격

가.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홈스쿨링 및 비인가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가능)

4. 전형 일정

가. 학교 방문의 날(입학 설명회): 9월 16일 토요일 3시

학교 체험의 날(가을 축제): 9월 30일 토요일

나. 1차 전형(서류 전형)

(1) 원서 교부: 9월 16일(토)부터(학교 홈페이지에서 교부)

(2) 원서 접수: 9월 18일(월) 부터 10월 20일(토)까지

※ 우편 접수는 본교 도착분에 한하고, 팩스나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

① 본교에서 정한 입학 원서

② 본교에서 정한 입학 동의서

③ 본교에서 정한 학부모 설문지

④ 본교에서 정한 학생 설문지(자필로 적기)

⑤ 본교에서 정한 교사 소견서(담임 또는 학생을 가까이서 1년 이상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

⑥ 6개월 이내에 찍은 가족 사진

⑦ 비폭력 서약서

⑧ 전형료: 20,000원(입금 계좌 번호는 원서 교부 시 알림하며, 반드시 학생 명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전형 캠프 비용은 추후 별도 공지

※ 위의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미비자의 경우 접수에서 제외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4)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10월 23일(월) 학교 홈페이지 게시

다. 2차 전형(신입생 전형 캠프 및 면접)

(1) 일시: 11월 3일(금)~5일(일) (※ 숙식비, 학습 활동비 별도 부담)

(2) 장소: 본교

(3)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11월 6일(월) 학교 홈페이지 게시

라. 3차 전형(추첨)

* 2차 전형 결과 합격자가 정원 수와 일치하면 추첨 전형은 하지 않습니다.

마. 신입생 예비학교

(1) 일시: 12월 중(추후 공지. 단, 숙식비, 학습 활동비 별도 부담)

바. 합격자 등록: 12월 중

5. 기타 사항

가. 교사 자녀에 대해 정원 외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 본교는 중·고 통합과정의 학교이며, 생활관(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 비인가 학교로서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라.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www.gandhischool.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충북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61 제천간디학교

전화: 살림터(행정실) 043) 653-5791 / 교무실 043) 653-5792~3

간디학교





기자 후기



권윤서 (2학년) 글기자

이번 호에서 처음으로 화제의 인물을 맡았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화제의 인물 화보 예쁘게 찍어 준 문형 언니랑 인터뷰 해 준 하진 언니, 하성 오빠 진짜 고마워요! 이번 호는 기사를 일찍 끝내서 너무 다행입니다ㅋㅋㅋㅋㅋㅋ 가을 호도 마감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담 (3학년) 사진기자

기자 후기를 쓰는 게 쪽팔려지는 순간이군요. 헉~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흘러간 거 같아요. 다음 호에는 좀 더 열정적이고 활기차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만나요~ v_o○_v



김서준(1학년) 글기자

기사 쓰는 동안 너무 멀렁거렸던 것 같네요... 다음 호에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기사 쓰겠습니다!!



김재하(3학년) 삽화기자

손목뼈가 부러져 이번 호는 스케줄러밖에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름 호의 스케줄러는 전에 스케줄러들과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진 않지만 더 신선하고 색다른 스케줄러를 위한 일종의 도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호 스케줄러는 더욱 보기 쉬운, 보기 즐거운 스케줄러로 그려 내겠습니다.



박우제(3학년) 글기자

힘들었음... ㅎㅎㅎ